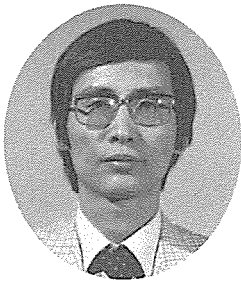


성 마리아병원 研修記(1)

朴 英 哲

부산 성분도병원 마취과장



외국 여행이라는 설레임, 일본이라는 호기심 그리고 주어진 좋은 기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된 성 마리아 병원 연수는 병원연수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본연수도 되었다.

여권과 비자의 번거로움에 비해 답습한 비행기는 단 32분만에 나를 福岡(후쿠오카)에 내려놓았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설은 언어가 여기저기서 귀에 와 닿을 때 이 곳이 일본이구나 하는 실감과 동시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보다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 졌으나, 일본인 특유의 친절한 안내와 잘 구비된 기숙사를 둘러보고는 한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福岡에서 철도로 약 30분 떨어진 구루메市の 외각에 위치한 성 마리아 병원은 1400여 병상 규모의 큐슈 지방에서는 최대 규모의 사립병원으로 나는 그곳 마취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고 병원 당국의 배려로 사가의과대학에 파견나가 동통 치료실과 마취과 등을 연수할 수 있었다.

병원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톨릭 계통의 병원으로 기숙사 앞에 고풍의 성당이 서 있고 원내 곳곳에

는 성모상이나 성화등을 볼 수 있었으나 정작 직원중 신자는 독실한 원장일가의외엔 10여명 밖에 없어 아직 일본 전체에 가톨릭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서 몇 손가락안에 드는 후자를 내는 병원이라지만 이곳에서도 인력난은 있는 듯 직원 전용 유치원을 두어 자녀가 있는 직원을 붙잡아 두고 있었으며 토요일도 오후 5시까지 정상근무하는 대신 의사들은 주 5일 근무를 하며 특정한 요일을 정해 쉬고 비상근 의사들이 많은 것이 특이하였다.

대규모 병원답게 각종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신생아, 소아의료 센터는 큐슈 전역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미 일본을 다녀온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들의 인사성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를 무색케 했으며 몸에 배인 친절은 바로 환자에게 이어져 의사와의 관계를 아주 원만하게 이루게하는 주요한 요소인 것같았다.

풍부한 경제력이 뒷받침된 최신 설비와 물자가 그런 여유를 만들었지만 철저한 환자위주의 진료에 임하였으며 간단한 예로 우리 병원에서는 처치실에서 행하는 정맥혈관확보, foley catheter 및 L-tube 의 삽관등을 수술실내에서 마스크로 일단 환자를 마취시킨후 처치함으로써 그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었다.

그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느낀 또 한 가지는 자기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았다. 환자가 있음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 듯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시간에 맞춰 퇴근하려고 서두는 이는 별로 볼 수 없었으며 일별레라는 일본인의 통념이 의료인에게도 그대로 적용 되는 듯 하였다.

외국에는 개인 책상들을 딱딱딱 붙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으나 복도, 강당등은 시원할 정도로 넓게 할애하는 공익우선의 정신은 시내에 잘 꾸며진 공원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T.V.에 수시로 나오는 지진 소식, 곳곳에 산재해 있는 온천과 아직도 불을 뿜고 있는 화산을 보며 일본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되기에 앞서 아직 활력이 넘치는 나라라는 느낌이 먼저 와 닿는 것이 솔직한 감상이다.

매일 신문에 끼워져 들어오는 두툼한 상품 팸프렛

은 그들의 치열한 상흔을 얼볼 수 있었고 화려하게 장식된 상품 진열대에 끼지 못하고 한구석에 싸구려로 취급되어 박혀있는 made in Korea를 보고 자존심이 상했던 일도 잊을 수 없다.

같은 동양 문화권의 일본은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생김새와 사고방식이 그렇고 우리가 바둑을 두고 고스톱을 치듯이 그들도 마작과 빠징고를 즐기고 가라오게 또한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생맥주를 마시며 서로의 우의를 쌓아 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낌은 나만의 생각은 아닌듯 하다.

마지막으로 다음 연수를 떠나는 이를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로 사전에 보다 철저한 연수준비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일본어는 어느정도 능숙히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의료진의 경우의학용어에 대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고자하는 부서의 사전 지식을 갖고 출발함이 충실한 연수의 지름길이다.

약 80일간의 일본 생활은 나에게도 평생 귀중한 추억이 될 것이며 연수기간 중 보고 배우며 느낀 점은 앞으로의 나 자신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병원 발전에 일조를 하였으면 한다.

그 동안 동고동락하신 김도섭 선생님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주위의 여러분 그리고 성 마리아 병원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환자실에서 필자(右)

□ 研修記 □

성 마리아병원 研修記(2)

김 춘 자 수녀

대구파티마병원 심전도실장



가톨릭병원협회의 추천으로 가게 된 日本 福岡縣에 있는 성 마리아병원 연수의 기회는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해 준 시간이 되었다.

먼저 일본어와 영어의 사전 테스트는 낭패감까지 느끼게 했고 4개월 좀 안되는 일본어 습득 기간 중 내내 느껴야 했던 불안감과 부끄러움은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국제화시대 그것도 첨단의료기기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종사자로서의 성장과 자기발전을 위한 평소의 노력이 소홀했음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모든 환자들을 위한 길이 됨을 잊고 있었다는데 대한 부끄러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었다.

6월 9일 오후 12시 20분, 난생 처음의 외국행, 기대와 호기심을 품고 김해공항을 출발한지 한시간도 안되어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이란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시간 정도 달려 久留米市라는 시골같이 조용한 곳에 위치한 성 마리아 병원에도착했다.